

# 美國 同氣關係研究의 最近動向

— 기본인식과 접근방법 —

## Current States of Sibling Researches in America

한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박 영 애

*Hannam University*

*Young Yae Park*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1) 가족간 연구
II. 기본인식과 접근법의 변화추이	(2) 가족내 연구
III. 연구변인 분석	2) 동기간 상이성
1. 연대별 특징	(1) 가족간 연구
2. 변인분석의 장애요인	(2) 가족내 연구
IV. 최근연구의 구조적분석 및 논의	3. 매개과정
1. 동기관계 분석의 기본단위	V. 결 론 : 새로운 접근법의 모색
2. 변이의 근원 및 접근방식	참고문헌
1) 동기간 유사성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establish a groundwork for building a more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within which various aspects of sibling relations and factors related to sibling behaviors can be explained and integrated. Descriptions of the trends and shifts in sibling studies are made in terms of their themes, variables, basic perceptions and general approaches, and analyses of current state of sibling researches are made with relation to the conceptual aspects of the studies, namely, their standpoints on the issues of sibling variations, the sources of variations, and basic units of analysis, their reliance or emphasis on different methods, and their interests in the mediating processes.

It is recognized that research variables have been successively differentiated and used in diversified manners and family ecology and systems theory viewpoint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understanding of sibling relations.

A triad in its full meaning, rather than a dyad or a partial triad, is proposed as a unit of analysis in order for the researchers to be able to examine and describe the true interactional

aspects of family relations involving sibling relations.

The concepts of coexistence and interaction are proposed as key concepts so that the inconsistencies in findings, differing viewpoints, contradicting conceptions, and contrasting approaches can be interpreted and integrated into a unified system of theories on siblings. The coexistence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eality, the inevitability o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nd between within-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out-of-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need for the joint use of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approach are acknowledged.

Attention is also drawn to the mechanism characteristics and the directionality of the mediating processes or mediating variables between a variable and its effects.

## I. 서 론

가족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온 분야이나, 그 내용은 주로 부모자녀관계에 편중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에 의한 자녀의 사회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형제자매관계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있어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며 외동이를 제외한 모든 아동은 동기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서울 어느 국민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한 연구의 경우, 형제수가 하나뿐인 아동은 전체의 1%에 불과했고 2~5명인 경우가 93%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영남, 1980).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과연 아동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동기관계란 혈연을 공유한 운명적인 관계로서, 제한된 여건속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면서 상호간에 동일시 및 모방의 대상이 되고, 권위에 대한 태도와 성취의 기준을 획득하고 갈등해소 방식과 자아방어의 기술을 습득하며 성별 역할과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형제 가운데서 아동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한 발달적 변수로서 어린 시절 동기관계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화, 인성, 사회인지발달 및 적응의 다양한 측면들과 연관되어 있음은 문헌들에서도 거듭 지적되어온 바이다(Dunn, 1983, 1988).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동기관계가 아동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Buhrmester & Fur-

man, 1987). 아동자신들의 지각에 의하면 동료적 관계(companionship) 및 친밀성(intimacy)에 대한 아동의 전반적인 요구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변하는 것으로서, 부모와의 동료적, 또는 친밀한 관계는 어렸을 때는 중시되나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고, 친구와의 관계는 커 갈수록 증가하여 사춘기나 청소년기 무렵 부터는 그 비중이 부모와의 관계를 능가하나, 동기관계는 변함없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Buhrmester & Furman, 1987).

이와같이 아동기 경험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관계는 연구자들에게는 물론, 자녀들의 동기관계발달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나 체계적인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는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의 가족관이 핵가족과 소가족을 지향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족규모의 축소나 동기구성의 변화에 따른 동기관계의 본질과 의미의 변화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가족구성원의 수가 감소할 수록 개인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각 구성원 상호간의 영향력은 증대되므로 부모자녀관계 뿐아니라 형제자매관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가족집단 구성원들간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양상과 그 과정 및 효과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동기관계 연구들은 대체로 여러가지 차원에서 발견되는 동기간의 차이점들을 규명하는데 주력해왔다. 한 가정의 형제자매들이 같은 연령의 비혈연 아동집단에 비하면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나 한 집안 아이들도 인성이나 능력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며, 뿐만아니라 동기관계의 질은 가족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밝혀져 있다(Stoneman, Brody & Mackinnon, 1984; Brody, Stoneman, Mackinnon & Mackinnon, 1985).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지닌 동기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를 자극하고 방향을 주도하는 이 분야 고유의 지배적인 이론들이 뚜렷이 부각되거나 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수행되어 온 관계로, 그 결과상의 불일치는 물론 그러한 결과들을 설명 또는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동기관계에 관련된 주제나 상황 또는 발달주기에 따른 자료를 종합하거나 당시의 연구현황등을 나름대로 파악한 문헌들은 있으나(Altus, 1966; Bayer & Folger, 1967; Sutton-Smith & Rosenberg, 1970; Adams, 1972; Cicirelli, 1976; Lamb & Smith, 1982; Dunn, 1983등) 현시점에서 동기관계연구를 종합적인 안목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의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찰은 동기관계연구들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최근연구 동향의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존자료를 조망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와 입체적 시각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모든 동기관계 연구는 동기간 행동특성의 묘사나 유형화 작업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가족내에서의 아동의 경험과 발달을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동기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결국 가족관계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측면들과 자녀양육의 여러가지 차원과 요인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기관계, 부모-자녀관계와 동기관계의 상호작용, 환경적맥락(context)으로서의 가족적 요인,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아동의 발달등을 중시하면서 자료들을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최근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우선 미국의 자료에

한하여 고찰이 수행되었다. 국내자료가 최소한 탓도 있고 국내연구들이 이론이나 연구방법에 관련된 정보획득면에서 적잖게 의존해오고 있는 서구 연구들의 현재수준 파악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파악작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동기관계에 관한 기본인식과 접근방법의 구조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증적 자료의 분석과 평가는 후반부 작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주요학술지들에 게재된 동기관계 관련 최근 논문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사후에 틀을 부여한 것이므로 고찰내용의 하위영역들 간의 균형이 부족하다. 셋째, 연구변인 및 주제의 연대별 파악 부분에서는 문헌인용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특정변인이나 연구주제를 사용한 연구들이 다수인데다 한 연구가 두군데 이상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 인용이 지나치게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장차 연구의 변인설정이나 방법설계에 나름대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II. 기본인식과 접근방법의 변화추이

대체로 70년대 까지의 동기관계연구들은 지능과 인성의 예측요인으로서의 동기간 지위변인들(출생순위, 성, 성별구성, 터울 등)에 대한 시대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가족관계를 개인발달의 배경(context)으로서 보려는 연구적 노력이 집약되기 시작하였다(Belsky, 1981; Burr, Hill, Nye & Reiss, 1979a, 1979b; Hartup, 1979; Lewis & Rosenblum, 1979). 어머니-자녀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온 발달 연구에 변화가 일어나고 동기관계를 사회적 관계라는 배경속에서 조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였으며(Corter, Abramovitch & Pepler, 1983; Brody, Stoneman & Mackinnon, 1982; Stoneman, Brody & Mackinnon, 1984; Stewart, Mobley, VanTuyl & Salvador, 1987; Stocker, Dunn & Plomin, 1989), 동기관계 형성에 작용하는 가족적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신선한 시도들이 행해졌다(Dunn, 1983). 인간발달 배경(context)으로서의 가족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조장하는 가족의 역량에 영향을 주는 외부체계들로 주의를 돌리기 시작하면서(Bronfenbrenner, 1986) 인간발달을 조망하는 시각은 다각화하고 거시화하였다.

과거의 많은 발달연구들이 가족의 특성을 묘사함에 있어 그 실제적 복잡성을 적절히 시사해주지 못해온 것은 사실이다(Walters & Walters, 1980). 따라서 가족환경이 발달적 산물을 형성해 가는데서 수행하는 역할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Dunn & Kendrick, 1982; Lamb, 1978; Mednick, Baker & Hocevar, 1985) 동기관계 형성에 작용하는 가족적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고,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려는 경향이 보편화 되어왔다(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Walters & Walters, 1980; Thompson & Walker, 1982). 체계적 접근의 점수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명제로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보다는 둘 사이의 그 보다는 셋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각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둘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며(Thompson & Walker, 1982) 양자관계(dyad)보다는 삼자관계(triad)를 인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단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Vuchinich, Emery & Cassidy, 1988)은 이런 맥락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가족치료자(Minuchin, 1985)나 일부 발달이론가들 중에서도(Sameroff, 1983) 이와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모자녀관계나 동기관계에서도 어머니-아동의 양자관계나 동기간 양자관계를 넘어서 어머니-아동-동기 삼자관계로 가야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Jones & Adamson, 1987; Lewis, 1984). 양자간 상호작용에 제삼자가 추가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개입이 양자간 상호작용의 양상과 결과에 명백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어(Vuchinich, et al., 1988) 삼자관계에 대한 관심은 실증적으로 정당화되어 가고 있다.

동기관계에 작용하는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측면(Brody & Stoneman, 1986),

특히 어머니행동의 안정성과 변이성(Ward, Vaughn & Robb, 1988; Dunn, Plomin & Daniels, 1986; Main, Kaplan & Cassidy, 1985) 그리고 가족내 환경요인(Rowe & Plomin, 1981; Daniels & Plomin, 1985)등이 강조되고 있다. 어머니 행동에 대한 관심은 양육행동 연구가 활발했던 6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동기관계와 어머니 행동의 제측면간의 다양한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Bank & Kahn, 1982; Bryant & Crockenberg, 1980; Stocker, et al., 1989; Brody, Stoneman & Burke, 1987; Daniels, Dunn, Furstenberg & Plomin, 1985; Hetherington, 1988; McHale & Gamble, 1987).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역시 주요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동기관계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아동간 애착의 질과 안정성은 영아의 행동이나 기질보다는 양육의 질, 즉 어머니의 기질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다(Weber, Levitt & Clark, 1986). 아동의 기질 역시 어머니 행동, 가족수와 함께 동기관계 측정치 변량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견되어(Stocker, et al., 1989) 주목되고 있다.

요약하면, 개인의 인성 또는 지능의 예측요인으로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동기관계는, 가족관계가 개인발달의 환경으로서 그리고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인간발달의 배경 환경으로서의 가족생태환경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연구의 기본단위도 양자관계에서 삼자관계로 확대되어 왔다.

### III. 연구변인 분석

#### 1. 연대별 특징

1940년대 까지의 동기관계에 대한 관심은 간헐적인 것으로서 출생순위(만이와 그 이하, 첫째와 둘째, 만이와 중간과 막내, 또는 독자)나 가족크기에 따른 아동의 인성 및 지능 특성들(우월성, 경쟁성, 천재성, 사회적 성공, 지능 등)을 체계없이 묘사하고 있다.

50년대의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구조 변인들, 특히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행동의 차이, 인성특성, 성서적 태도 등이 다루어 지고 있다.

60년대의 연구들은 출생순위를 독립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압도적이며 여전히 가족구조 변수들이 우세한 가운데 어머니의 행동차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아동(특히 영아)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아동의 인성특성과 지능등이 여전히 종속변수에 포함되어 있다.

70년대 역시 출생순위와 가족크기등을 중심으로한 연령, 터울, 아동의 성, 동기의 성, 성별구성 등의 다양한 가족구조 변인(또는 동기지위 변인들)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고 드물게는 출생순위 자체의 연구변인으로서의 타당성 또는 적합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체계로서의 동기관계, 배경환경으로서의 가족, 동기간 상호작용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기 시작한 하였으나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연구관심과 접근방법의 다각화·다면화 추세에 힘입어 아버지의 역할 및 영향과 동기관계에 대한 아동자신의 지각도 간혹 다루어졌다. 종속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로는 인지발달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잘 반영해 주는 것들(지적발달, 인지적 과제수행, 지능, 창의성, 학교생활의 성패, 문제해결 등)과 사회적 발달(성역할, 공격성, 사회화등), 어머니 양육행동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적응(정신병적 증세 여부, 가족치료나 행동수정을 통한 동기간 행동변화등)에 관련된 것들이 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동기관계 연구의 진전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한 개념들은 환경적 배경의 문제(contextual issues), 어머니-아동간의 애착의 역할, 어머니 행동의 일관성과 변이성, 기질(temperament)의 역할, 비공유 환경요소(non-shared environmental factors), 그리고 삼자관계(triad) 및 사자관계(tetrad)의 개념들이다.

연구변인으로서의 출생순위에 대한 일각의 부정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여전히 출생순위, 동기간 자위(sibling status), 터울, 성, 가족크기, 독자(singletons, onlies) 등의 용어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과의 차이는 그러한 변수들의 차별적 효과의 기술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행동차이를 발생시키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전환과 그로인한 연구설계상의 진전이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전망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된 환경 및 행동 특성들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동기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든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쪽으로 인식되든지 하게된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모든 가족구조 변인들, 순위나 연령 또는 성에 따른 어른들의 기대나 신념 및 태도,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 어머니 행동의 안정성, 어머니의 개입, 어머니-아동간 애착의 질과 안정성, 가족내 환경차이 또는 비공유환경요인, 가족내 차별적 경험, 어머니 또는 아동의 기질(예 : 활동수준), 가족갈등, 아동과 동기의 사회인지요인(예 : 조망수용능력), 아동의 사회화, 그리고 개별아동이 경험하는 사건들(life events) 등이 있다.

후자에 해당되는 것들에는 동기간 역할관계의 유형, 또래 관계, 부모자녀관계, 인성특성(의존성, 양육성, 지배성, 경쟁성, 모방성, 순종성, 공격성 등), 아동의 정서(애정, 질투, 슬픔, 분노, 즐거움, 불안 등) 및 사회정서적 적응(동생출생에 대한 큰애의 적응등), 아동의 인성특성 및 사회화에 관련된 행동(조력제공-조력구하기, 양육-의존 행동, 교수-학습행동, 시범-모방행동, 순종-비순종행동, 논쟁행동, 경쟁적 행동, 지배적 행동, 관리적 행동 등 여러가지 사회적 능력과 기술), 언어 발달(어휘획득, 언어사용패턴, 언어산출력과 이해력등), 활동수준, 모델링, 인지능력(대상분류, IQ등), 학습(개념학습등), 그리고 개인차등이 있다.

위와같은 분류는 편의상 특정연구 내에서 연구자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용어나 시각 또는 해석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며, 실제로는 대다수의 변인들은 위의 두 범주중 어느쪽에도 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몇가지 변인들(예 : 가족구조 변인들)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은

동기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범주 어느쪽에도 소속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에는 동기관계의 관계적 특성 자체를 묘사하는 개념들(예 : 상호보충적 패턴, 동일시적 특성, 애착적 양상등)이라든가, 또는 동기간 상호작용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간의 차이, 또는 동기간 역할관계와 또래간 역할관계와의 차이 등이 있다. 부모의 이혼 및 재혼, 불구인 동기를 가진 아동, 동기의 죽음, 일탈아동의 동기관계, 동기간 갈등의 개입 또는 치료효과등 특수상황에서의 동기관계도 연구된 바 있다.

## 2. 변인분석의 장애요인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구의 주제가 되는 개념들이나 변인들은 연구가 거듭될 수록 계속 분화하고 새로운 것이 출현하고 서로 자리바꿈을 하고 또 새로운 조합을 형성하기도 해서 단순한 범주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논쟁성, 조망수용, 친사회성, 언어능력, 의존성, 어머니의 기대 또는 개입, 어머니행동의 일관성, 가족갈등, 또는 또래간 행동등의 행동특성은 동기관계 속에서 형성 또는 획득되었거나 동기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봐서도 연구변인들의 이원론적 취급은 무리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동기관계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회적·단기적인 관찰·실험연구만이 아니라 변인들간 상호작용적 효과의 순환성 및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연구방법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동기관계 연구변인 정리에 어려움을 주는 또 한가지 요인은 동기관계라는 용어가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동기관계는, 동기관계의 구조적 특성인 동기구성 변인(출생순위, 성, 연령, 터울, 동기의 성, 동기의 수)자체, 동기의 존재나 그의 행동, 개인적 인성 또는 행동특성들의 동기간 차이, 동기간 상호작용 내에서의 행동의 상대적 특성, 특정한 동기쌍이

지니는 관계나 상호작용의 질이나 특징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동기관계와 애착행동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동기관계는 동기간 지위변인들은 물론 애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행동에서의 동기간 차이, 상관관계, 또는 상호작용유형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애착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다양한 동기간 행동특성이나 차이 또는 상호작용 및 관계적 특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동기관계는 특정시기의 동기관계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생활주기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일용어의 상이한 개념화나 사용상의 혼란이 연구자료의 정리를 어렵게 한다.

## IV. 최근연구의 구조적분석 및 논의

### 1. 동기관계 분석의 기본단위

새로운 변수들의 등장과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기관계연구는 이제 평면적 기술이나 단순한 묘사의 단계를 지나 설명의 단계로 성장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동기관계분석의 기본단위는 개인에서 양자관계(dyad), 양자관계에서 삼자관계(triad)로 확대되었고, 사자관계(tetrad)의 개념까지도 제시된 바가 있다.

초기연구들은 서로다른 가정의 상이한 출생순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기간 순위별 특징들을 조사하였으므로 생물학적 관련도 없는 아동들로부터 형제에 관한 자료를 얻은 셈이며, 분석의 기본단위는 아동 개인이었다.

점차 한 가족내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동특성들을 비교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접근방법에는 사실상 두가지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형제를 대상으로는 하되 개별아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로서 분석의 단위는 여전히 개인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동기간 상호작용 속에서 상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형태로서 상호작용 또는 양자관계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는 경우이다.

양자간 상호작용 도식에 제삼의 대상이 추가되고 분석단위가 외양상의 삼자관계로 변한 것은 동기간 행동차이의 발생과정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동기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하던 시기만 해도 그러한 상호작용 패턴의 결정요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드물었고 있다해도 실증적이기 보다는 이론적 또는 추론적인 것들에 불과했다(Stocker, et al., 1989 ; Brody, et al., 1987).

삼자상황에 관한 연구 역시 몇가지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양자관계에 또 하나의 양자관계를 단순히 추가하여 별개의 두 양자관계들을 비교하는 수준이고(Dunn, et al., 1986 ; Dunn, Plomin & Nettles, 1985 ; Dunn & Munn, 1987등), 다른 하나는 삼자관계 내에서의 두 양자관계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수준이다(Jones & Adamson, 1987등).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인듯이 양자관계에 한 구성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관계에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 만큼 동기관계도 가족맥락 속에서 이해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유형 중 후자의 방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80년대 중반에 들어 나타나고 있으며 현단계로서는 그와같은 접근법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또는 최종적인 형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명실공히 삼자관계의 본질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개의 관계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세 관계선들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흔한 가족형태인 두자녀 가족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원칙적으로 하자면 사자관계(tetrad) 모형을 통한 연구가 가장 타당하고 또 바람직하다. 가족내 사자관계(family tetrad)라는 표현은 Schachter(1982)에 의해 사용된 바 있는데, 그는 부모 자녀관계나 동기관계에서 일어나는 동일시(identification)와 역동일시(deidentification), 그리고 부모 분리동일시(split-parent identification)에 대

한 연구를 통해서 사자관계는 가족체계 이론가들의 주요 관심대상이자 일부 가족치료자들이 병리적이라고 보고있는 삼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동기간 역동일시 연구에서 삼자관계간 상호작용은 흥미롭게 분석(첫째와 둘째, 둘째와 셋째, 그리고 첫째와 셋째간의 동일시를 모두 비교분석)한 바 있으나, 그의 사자관계의 개념은 부-자와 모-녀관계 또는 부-녀와 모-자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가족내 다른 관계들은 접어둔채 한부모-한자녀 관계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자관계 연구 역시 초기단계에는 기존하는 양자관계(또는 삼자관계)에 한 두개의 양자관계선들을 단순히 추가하는 불완전한 형태에서 출발하여 삼자관계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단 사자관계는 워낙 복잡해서 과연 어디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표 1).

## 2. 변이의 근원 및 접근방식

### 1) 동기간 유사성

동기간에는 과연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 차이는 비동기간 아동들간의 차이보다 큰가 적은가? 차이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이 시도되어 왔는가?

#### (1) 가족간 연구

연구방법 면에서는 가족간 연구와 가족내 연구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다수가 가족간 연구로서 주로 가족간 차이의 근원을 가족간 양육환경의 차이에서 찾았다. 초기 사회학습이론의 양육연구들(Sears, Maccoby & Levin, 1957등)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환경과 행동간의 상호작용을 주로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하던 때는 상이한 가족이 상이한 행동을 낳으며 한가족 아동은 유사한 환경적 영향에 노출되므로 서로 비슷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나 행동 또는 다른 부모특성들을 범주화하여 그에 따른 그 가정 아동의 인성과 적응, 지능, 학업성취등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와같은

표 1. 동기간 상호작용 분석모형 : 동기관계 분석의 기본단위 분석표

분석 인원	분석 모형	분석 유형	분석 단위	비교 수준	변이 근원	접근 방식	비고
1 2인		분리 점형	개인	단순 비교	관심없음 (묘사에그침)	가족간연구	
2 〃		비분리 점형	개인	단순 비교	〃	가족내연구 or 가족내 & 가족간연구	많이 사용 (3과 혼돈 없을 것)
3 〃		선분형	양자관계 (dyad)	상호 작용 효과 비교	동기간 직접적 상호작용	〃	많이사용
4 3인		V형	세개의 독립적인 양자관계중 두개또는 세개	단순 비교	관심없음 (한개인이다른 2인과 가지는 상호작용의차 이묘사에그침)	〃	최근연구들이 사용. (5과 혼돈 없을것)
5 〃		A형	두개의 양자관계 간의 상호작용	상호 작용 효과 비교	제삼자개입이 기존 양자관계 에 미치는 영향	〃	최근일부 연구들이사용 (6과 혼돈 없을것)
6 〃		삼각 모형	세개의 양자관계간 상호작용 or 삼자관계 (triad)	상호 작용 효과 비교	삼자간 상호작용		현단계에서 추구해야 하는모형
7 4인		단순 비교 사각형	여섯개의 독립적인 양자관계중 일부또는 전부	단순 비교	관심없음 (내포된 양자관계들 간의 차이 묘사에 그침)	〃	4자관계 연구의초기 모형. 기술적자료 수집위해 사용해 불만함
8 〃		부분형 사각 모형	여섯개중 일부의 양자관계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 작용 효과 비교	일부 양자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	〃	현단계에서 일부는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일부는 노력해 불만하며 일부는 어려움
9 〃		사각 모형	여섯개의 양자관계간 상호작용 or 사자관계 (tetrad)	상호 작용 효과 비교	여섯개의 양자관계간 상호작용	〃	실현가능성 미지수



가족간 연구들은 양육환경과 아동특성간의 연합을 입증하는데만 전념한 관계로 한 가족에서 한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했으므로 한 가정내 아이들 간에도 있을 수 있는 차이를 무시했다는 결함을 지닌다. 한집 아이들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은 가족간 차이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내 환경의 공통성이 가족간의 일관성이나 공통성보다 크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뒷받침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동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족환경도 그 한꺼풀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Daniels & Plomin, 1985)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2) 가족내 연구

위에서 지적된 방법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내적 방법으로 동기간 유사성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이 있다(Dunn, et al., 1985; Dunn & Kendrick, 1982; Corter, et al., 1983; Dunn, et al., 1986; Ward, et al., 1988; Main, et al., 1985; Weber, et al., 1986). 이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행동에서 상당한 일관성을 발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동기간 유사성 자체보다 아동행동의 유사성이나 차이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어머니 행동이 몇가지 이유에서 동기간에 상당히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동기간 유사도도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Dunn과 그의 동료들(1986)은 모든 측정치들(애정적 행동, 구두적 반응성, 통제행동)이 어머니들간에, 즉 가족간에는 상당한 변이를 보인 반면 가족내에서의 두 자녀에 대한 어머니 행동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일관된 행동을 초기 동기관계의 조직화에 작용하는 주요변인으로 보는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아동간의 애착의 질은 부모자녀간의 애착에 대해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일종의 “작동모델(working model)” (Main, et al., 1985)과 어머니의 기질(Weber, et al., 1986)에 의존한다. 그 작동모델은 나름대로 상당한 지속성을 지니며 가족관계의 질, 나아가서는 동기관계의 질에 상당한

안정성을 부여해 준다. 다시말하면, 동기간 행동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는데, 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은 일관성을 보이며, 그와같은 어머니 행동의 안정성은 동기간 상관관계(유사도)와 정적상관을 보인다(Ward, et al., 1988). 이처럼 동기간의 사회정서적 행동의 실제유사성은 양육의 질의 유사성이라는 맥락속에서 출현하는 것이다.

자녀의 출생순위나 개인차에 반응하기 보다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나름대로의 철학과 태도가 있어서 서로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와같은 신념과 태도는 일관되게 표현된다(Dunn, et al., 1986; Dunn, et al., 1985). 과거의 연구는 연구당시 자녀의 나이가 서로다른 상태에서의 두 아동에 대한 어머니 행동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이런 경우의 어머니 행동차이는 두 자녀의 상이한 발달수준(상이한 의사소통능력, 요구등)에 대한 반응일 수 있으며 한가족내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취급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료이다. 따라서, 부모행동상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주요요인은, 특히 학령전기까지의 어린 아동에 있어서는 아동자신의 발달단계와 주요 발달적 변화이며(Dunn, et al., 1986) 어머니의 취급차이는 자녀간 개인차를 야기시키는 주요요인이 못된다. 그러므로 동기간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논할 때는 그 아동들이 같은 발달적 시기에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비슷한 보살핌을 받았는지를 구별해가면서 논하지 않으면 동기간 유사성은 과소평가되고 차이는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출생순위, 성, 동기의 성 등에서 아동수를 전부 동일하게 한 연구에서 어머니 관련변수들이 일관된 효과를 보인 것(Dunn, et al., 1985)은 자녀발달단계가 어머니행동을 결정한다는 위의 주장을 지지해주나, 어머니행동의 일관성이 특히 출생순위가 인접한 동기간에 한해서만 유의하게 나온 것(Dunn, et al., 1982; Abramovitch, Pepler & Corter, 1982)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머니 자신의 변화를 시사해 주고 있어 그러한 이론의 한계성을 엿보게 한다. 뿐만아니라 아동은, 물론 과거나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많지만, 현재의

경험속에서 형성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형제와 같은 나이일 때 어떤 취급을 받는가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차별적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으로 동기간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다소 지나친 단순화인 것 같다. 어쩌면 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차이는 행동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측정될 수 있기 보다는 두 자녀와의 동시적 상호작용 가운데서 보다 미묘하고 일관되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상호작용적 맥락속에서 관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동기간 상이성

서로다른 가족 속에서 따로 자란 비혈연인 또래간 보다 더 많은 유전적 자료들과 유사한 가정환경을 공유하면서 자란 생물학적 동기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 가족간 연구

동기간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들 역시 초기에는 동기간에 대한 부모행동의 집단적 차이를 보는 식의 가족간 연구였다. 다시말하면,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 행동차이가 동기간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다른 출생순위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행동을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차이로서 동기간 차이를 기술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들면, 첫째나 맏이의 어머니들은 그 이후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들 보다 지시적이고 간섭적이며(Hilton, 1967; Rothbart, 1971등)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며(Koch, 1954) 보다 비일관적(Sears, et al., 1957)이라는 발견들이 그에 속한다.

이러한 가족간 연구를 통한 가족내 상이성 주장의 취약점은 과연 가족내 변량이 가족간 변량을 능가하는가 하는 비교자료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데 있다. 사실, 가족간 접근을 통해 발견된 행동-환경관계는 일반적으로 약한 편이고 대부분의 변량은 가족간 보다는 가족내에 놓여있어 가족간 연구보다는 가족내 연구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Maccoby & Martin, 1983)이 성립할 수도 있다. Rowe와 Plo-

min(1981)에 의하면, 환경변량의 30~100%가 가족내에 있고, 총표현형변량(인성, 인지, 정신병리 등)의 15~70%가 가족내에 있으며 특히 인성 특성면에서의 동기간 변량은 가족간에 보다 가족내에 훨씬 더 많이 놓여있어 가족내변량이 환경변량의 80~100%를 설명한다고도 추정되고 있다(McCall, 1983). 이는 심리발달에 관련된 환경적 영향이 한 가족 아동들로 하여금 유사하기 보다는 상이하게 되어가도록 작용함을 암시한다(Rowe & Plomin, 1981). 단, 인지특성에서는 가족내 변량이 환경변량의 30~50%밖에 설명하지 못하며 동기간 상관계수(.40~.50)는 인성특성(.15~.25)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인지-인성간의 불일치 자료는 아동의 행동특성 또는 발달영역에 따라 가족내적, 가족외적 변량이 지니는 상대적 설명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 (2) 가족내 연구

가족내 차이들을 가족내연구로 접근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접근의 특징은 가족내에서 각 개인이 경험하는 미시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상이한 경험의 근원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 동기관계문헌에 “비공유환경”(Rowe & Plomin, 1981) 또는 “차별적 경험”(Daniels & Plomin, 1985)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한가족내 아동들도 자신들의 환경중에서 서로다른 면들을 선택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용어 자체에 드러나 있듯이 차이의 근원이 환경적인 것임이 강조되면서도 그러한 차이가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경험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시각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비단 동기간의 차이만이 아니고 아동들이 보이는 다양한 개인차의 근원에 대해서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유용한 접근이다. 비록 비공유적 환경요인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맥락속에서 연구 또는 거론되어온 변인들에는 어머니의 차별적 취급, 각 아동의 기질적 특성, 각자에게 특수한 사건들, 상이한 또래 집단경험, 동기간 상호작용 내에서의 차이, 인성,

동기간 인접성. 그리고 유전적 특성등이 있다(Stocker, et al., 1989 ; Rowe & Plomin, 1981 ; McCall, 1983 ; Brody, et al., 1987 ; Daniels & Plomin, 1985 ; Stewart, et al., 1987 ; Rodgers & Rowe, 1985 ; Daniels, et al., 1985). 아동의 기질, 유전적 특성, 인성, 또는 일반가족구조변수들은 자칫 비공유적환경요인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듯하나 실은 이러한 변인들에서 두 아동이 서로간에 경험하는 차이는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명백히 비공유적인 것이다. 각 아동이 이러한 변인들에서 지니는 특징들은 서로간에 환경의 일부로 존속하면서 그들의 발달과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비공유의 개념은 곧 불평등 또는 불일치의 개념과 통한다. 거기에는 환경에 내포된 실질적 차이와 아동자신의 특성에 기인하는 차이가 포함된다. 주로 전자의 경우를 본 연구들로는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이 동기관계의 질에 연관되어 있고(Dunn & Kendrick, 1980) 그 예측에 독립적으로 기여한다는 것(Stocker, et al., 1989), 동기관계의 질은 특히 어머니의 행동과 동기의 기질 등 가족내 환경에 의해 중재된다는 것(Brody, et al., 1987), 그리고 어른들의 기대차이(Baskett, 1985)나 부모 자신들이 지각하는 자녀취급상의 차이(Buss, 1981)를 다룬 것등이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동기간 위치에 따라 각 아동에게 거는 어떤 기대나 믿음을 가지는데, 그러한 기대는 아동의 실제행동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 아동의 행동을 유도하고 변형시켜 결국은 자기 충족적 예언효과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Baskett, 1985)는 주장은 특히 아동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를 본 연구들로는, 각 아동의 조망 수용능력(사회정서적, 언어적, 개념적)의 차이가 동기관계에 주는 영향(Mednick, et al., 1985 ; Stewart, 1983 ; Jones & Adamson, 1987), 또는 아동의 성격과 기질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Stocker, et al., 1989 ; Berndt & Bulleit, 1985 ; Brody, et al., 1987)등이 있다. 개별아동이 겪는 일회적인 사건들이 지니는 비공유적 영향을 언급한 경우(Rod-

gers & Rowe, 1985 ; McCall, 1983)도 있고, 본인들의 보고에 의존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가족내 환경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기 동기들과는 다르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Maccoby & Martin, 1983 ; Daniels, et al., 1985)도 있다. 공통적 가족경험(이사, 이혼, 부모의 병)도 아동의 연령, 인성, 성, 또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McCall, 1983 ; Mackinnon, 1989 ; Hetherington, 1989).

### 3. 매개과정

연구결과가 누적되면서 변인효과들이 어느정도 일관성을 보이게 되면 연구자들은 그러한 효과의 발생과정에 대한 의문과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그 예를 보면,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언어행동의 차이를 매개하는 과정으로는 어머니의 차별적 언어행동(Jones & Adamson, 1987)이, 동생출현에 따른 큰아이의 부정적 반응이나 불안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양, 질, 그리고 패턴의 변화(Dunn & Kendrick, 1980 ; Dunn, et al., 1981)가, 동기간 행동유사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어머니 행동의 질(Ward, et al., 1988)이, 이혼이 동기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는 가족내의 다른 양자관계들과 전반적인 가족기능(Mackinnon, 1989)이, 그리고 출생순위가 활동수준 차이를 가져오는데 개입된 매개요인들로는 태내환경, 가족내 사회적 과정과 부모행동차이(Eaton, Chipperfield & Singbeil, 1989)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유사성 및 차이발생의 중간과정에 대한 공통적 관심을 표하고는 있으나 그 정도나 명시성 또는 추론이나 관찰이나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현재수준에서 볼 때 대부분의 과정관련 연구들은 주로 가족구조변수 또는 동기지위변수들이 동기간 행동차이를 유발시키는 중간과정에 대한 것들이다.

매개과정 규명작업이란 그 본질상 한 두가지 매개요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그 과정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키며, 이와같은 매개과정의

연속적 분화성은 인간행동연구를 일련의 과정분석 작업으로 규정짓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출생순위에 따른 동기간의 행동차이는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에 의해 매개된다고 할 때 어머니의 차별적 행동은 또 어떻게 해서 자녀들간의 행동 차이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행동발생과정에 내재하는 이와같은 연쇄적매개성은 동기관계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인들의 출현, 기존연구변인들간 관계의 복잡화와 다중화, 그리고 연구방법의 정교화를 예고해 준다.

매개과정 규명작업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변인의 방향성이다. 동기간지위에 따라 성인의 기대가 달라진다면(Baskett, 1985) 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Baskett, 1984; Dunn & Kendrick, 1981; Lewis & Kreitzberg, 1979; Cohen & Beckwith, 1977; Jacobs & Moss, 1976)은 거듭 확인되어온 바이다. 이러한 경우, 각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행동은 자녀의 동기간 지위라는 변인을 거치면서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동기간지위를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주요한 중개변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으나(Lamb & Sutton-Smith, 1982), 출생순위와 같은 동기간지위변인은 그 자체가 발달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나 반응을 좌우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기간 지위 자체를 중개변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매개변인 또는 매개과정은 연구의 초점에 따라서 보다 설득력있는 방향성을 지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매개과정의 규명은 동기간 갈등에 있어서의 개입과 치료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직접적인 치료이든 간접적인 수정의 형태이든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동기간 행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Allison & Allison, 1971; O'Leary, O'Leary & Becker, 1967; Mash & Mercer, 1979).

## V. 결론 및 제언

본 고찰은 미국의 동기관계 연구문헌을 자료로 하여 연구변인의 연대별 구성 분석과 아울러 최근연구동향의 특성을 동기관계의 개념인식과 기본적인 접근방식 및 동기관계 분석의 기본단위 등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동기간의 행동이나 관계의 특성, 그리고 접근하는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왔다. 현재까지 축적된 상반하는 자료들은 그 자체가 동기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동기 관계에도 유사성과 상이성이 공존하고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공동으로 기여하며 가족내적 경험과 가족외적 경험이 공존하며 상호작용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다소 편의주의적이고 자기본위적인 이론론을 넘어서 동기관계의 다양한 측면들과 속성들을,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느정도의 설명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상반되는 주장과 시각들을 수용하여 이론적 통합과 방법론적 진보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개념으로 "공존성" 및 "상호작용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Grotevant와 Cooper(1986)는 인간의 개인차가 가족관계내에 공존하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관련성(connectedness)을 어떤식으로 차이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 간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동기간 유사성과 차이의 근원에 대한 이론도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 통합의 내용면에서, 가족내에 공존하는 대립적인 가치들이나 상충하는 정서들 또는 정보의 질 등을 개별아동이 어떻게 고유하게 경험하고 종합하느냐 뿐만이 아니고 아동의 생활 속에 상존하는 가족내적 경험과 가족외적 경험을 그가 어떤 상대적인 비중, 성질, 양, 그리고 의미

속에서 겪고 해석하고 종합하느냐 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가족내 환경적영향 대 가족외 환경적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아동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리 가족환경이 지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도 가족내적 요인과 가족외적 요인이 상호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자녀 관계나 동기관계 속에서 한 아동이 경험한 통제와 허용, 만족과 불만, 관심과 무관심, 성취와 좌절, 민감성과 둔감성, 형식성과 비형식성, 합리성과 충동성, 원칙성과 융통성,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거시성과 미시성, 그리고 즉각성과 지연성 등의 수 많은 가치와 분위기 그리고 사고방식과 정서가 가정 밖에서 아동이 특정 문제나 상황 또는 대상을 대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반응하는데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을 리 없으며 그 반대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뿐아니라 발달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내적 영향대 가족외적 영향의 상대적 기여도도 연구를 해야한다. 과연 가족간 차이보다 가족내 차이가 아동의 발달이나 동기행동을 더 많이 설명해 주는지? 예를 들면 집안에서 형제보다 무엇을 더 못한다거나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덜 받는 것과 이웃집 또래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과는 어느것이 아동에게 더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어린 아동일 수록 가족외적 환경에 접하는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내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와 경로로 외부적 요인들을 경험할 기회는 있으며 그러한 경험이 상충하는 것이든 상보적인 것이든 간에 내외의 경험들간에 상호작용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공존성과 상호작용성을 올바르게 포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도 가족내적 연구법과 가족외적 연구법을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 또는 병행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연구설계에 그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적어도 그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는 것은 가능하고 또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표 1(동기간 상호작용 분석모형)에는 이러한 가족외적요인들과의 관계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동기관계는 반드시 그러한 관계망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분석단위를 논할때도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양자관계(dyad)가 아닌 삼자관계(triad), 그중에서도 양자관계의 합을 통해 삼자관계를 이해하려는 부분적 또는 불완전한 삼자관계가 아닌 보다 온전한 삼자관계내 상호작용으로 할것이 제의되었다. 뿐만아니라, 삼자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개념화된 바 있는 사자관계(tetrad)까지를 취급할 수 있는 이론과 연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기관계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인 동기간 유사성과 상이성, 동기간 차이의 가족내적 근원과 가족외적 근원, 환경의 안정성(일관성, 또는 구조적 특성에 결합된 지속성 등)과 변이성(불일치성, 비일관성, 일회성, 비지속성 등), 그리고 가족외적접근과 가족내적접근법등은 훌륭한 발달적, 방법론적 논쟁의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동기간 상호작용에 대한 입체적 이해의 기반을 제공해줄 뿐아니라 가족관계내에서의 인간관계의 본질과 그 상호작용성, 다시말해서 부모자녀관계와 동기관계의 맥락적 불가분성과 상호매개성, 가족내외 변인들간의 복잡한 상호작용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기본틀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현상적, 근원적, 방법론적인 모든 차원에서 동기관계연구는 공존의 원리와 상호작용의 원리를 중시하면서 가능한한 다원론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계속 시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영남(1980). 부모자녀관계 및 출생순위와 창의성간의 상관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2) Abramovitch, R., Pepler, D., & Corter, C.(1982). Patterns of sibling interaction among preschool-age children. In M.E. Lamb & B. Sutton-Smith (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 span*. Hillsdale, NJ : Erlbaum.
- 3) Adams, B.N.(1972). Birth order : A critical review. *Sociometry* 34(3), 411-439.
- 4) Allison, T.S., & Allison, S.L.(1971). Time-out from reinforcement : effect on sibling aggression. *Psychol Rey* 21, 81-96.
- 5) Bank, S.P., & Kahn, M.D.(1982). *The sibling bond*. NY : Basic.
- 6) Baskett, L.M.(1984). Ordinal position differences in children's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26-1031.
- 7) Baskett, L.M.(1985). Sibling status effects : adult expect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41-445.
- 8) Bayer, A.E., & Folger, J.K.(1967). The current state of birth-orde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3, 37-39.
- 9) Belsky, J.(1981). Early human experience :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10) Berndt, T., & Bulleit, T.N.(1985). Effects of sibling relationships on preschoolers' behavior at home and at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61-767.
- 11) Brody, G.H., & Stoneman, Z.(1986). Contextual issues in the study of sibling socialization. In Gallagher, J.J., & Vietze, P.M.(Eds.), *Families of handicapped persons*. Baltimore : Brookes.
- 12) Brody, G.H., Stoneman, Z., & Burke, M.(1987). Child temperaments, maternal differential behavior, and sibling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4-362.
- 13) Brody, G.H., Stoneman, Z., & MacKinnon, C. (1982). Role asymmetries in interactions between school-aged children, their younger siblings, and their friends. *Child Development* 53, 1364-1370
- 14) Brody, G.H., Stoneman, A., MacKinnon, C.E., & MacKinnon, R.(1985). Role relationships and behavior among preschool-aged and school-aged sibling pai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24-129.
- 15)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 16) Bryant, B.K., & Crockenberg, S.B.(1980). Correlates and dimensions of prosocial behavior : a study of female siblings and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51, 529-544.
- 17) Buhrmester, D., and Furman, W.(1987).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18)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1979a).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Research based theories. NY : Free Press.
- 19) Burr, W.R., Hill, R., Nye, F.I., & Reiss, I.L.(1979b).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2), General theories/theoretical orientations. NY : Free Press.
- 20) Buss, D.M.(1981). Predicting parent-child interactions from children's activity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9-65.
- 21) Cohen, S.E., & Beckwith, L.(1977). Caregiving behaviors and early cognitive development as related to ordinal position in pre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48, 315-316.
- 22) Corter, C., Abramovitch, R., & Pepler, D.(1983). The role of the mother in sibling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4, 1599-1605.
- 23) Cox, M.J., Owen, M.T., Lewis, J.M., and Henderson, V.K.(1989). Parental 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 : relations to parental, marital,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0, 1025-1034.
- 24) Daniels, D., & Plomin, R.(1985). Differential experience of siblings in the sam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47-760.
- 25) Daniels, D., Dunn, J., Furstenberg, F.F., Jr., & Plomin, R.(1985). Environmental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and adjustment differences within pairs of adolescent siblings. *Child Development* 56, 764-774.
- 26) Dunn, J., & Munn, P.(1987). Development of justification in disputes with mother and sibling. *De-*

- velopmental Psychology* 23, 791-798.
- 27) Dunn, J.(1983). Sibling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4, 787-811.
  - 28) Dunn, J.(1988). The beginnings of social understanding.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29) Dunn, J., & Kendrick, C.(1980). The arrival of a sibling : Changes in patterns of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first-born chil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1, 119-132.
  - 30) Dunn, J., & Kendrick, C.(1981). Interaction between young siblings : association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firstborn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36-343.
  - 31) Dunn, J., & Kendrick, C.(1982). Siblings : Love, envy, and understanding.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32) Dunn, J., Kendrick, C., & MacNamee, R.(1981). The reaction of first-born children to the birth of a sibling : Mother's repor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 1-18.
  - 33) Dunn, J.F., Plomin, R., & Nettles, M.(1985). Consistency of mother's behavior toward infant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188-1195.
  - 34) Dunn, J.F., Plomin, R., & Daniels, D.(1986). Consistency and change in mothers' behavior toward young siblings. *Child Development* 57, 668-672.
  - 35) Eaton, W.O., Chipperfield, J.G., & Singbeil, C.E. (1989). Birth order and activity level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68-672.
  - 36) Grotevant, H.D., & Cooper, C.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29, 82-100
  - 37) Hartup, W.W.(1979). The social worlds of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34, 944-950.
  - 38) Hetherington, E.M.(1988). Parents, children, siblings, six years after divorce. In R. Hinde & J. Stevenson-Hinde(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 Mutual influences. Oxford, England : Oxford University Press.
  - 39) Hilton, I.(1967).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mothers toward first- and later-bor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82-290.
  - 40) Jacobs, B.S., & Moss, H.A.(1976). Birth order and sex of sibling as determinants of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47, 315-322.
  - 41) Jones, CoP., and Adamson, L.B.(1987). Language use in mother-child and mother-child-sibling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356-366.
  - 42) Lamb, M.E.(1978). The development of sibling relationships in infancy :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49, 1189-1196.
  - 43) Lamb, M.E., & Sutton-Smith, B.(Eds.). (1982).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Hillsdale, NJ : Erlbaum.
  - 44) Lewis, M., & Rosenblum, L.(1979). The child and its family, NY : Plenum.
  - 45) Lewis, M.(Ed.). (1984). Beyond the dyad. NY : Plenum.
  - 46) Lewis, M., & Kreitzberg, V.S. (1979). Effects of birth order and spacing on mother-infant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17-625.
  - 47) Maccoby, E.E., & Martin, J.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Series Ed.) & E.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social development(4th ed.). NY : Wiley.
  - 48) Mackinnon, C.E.(1989). An observational investigation of sibling interactions in married and divorc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6-44.
  - 49)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r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50) Mash, E.J., & Mercer, B.J.(1979). A comparison of the behavior of deviant and non-deviant boys while playing alone and interacting with a sibl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 197-207.
  - 51) McCall, R.B.(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intelligence : The forgotten realm of discontinuous nonshared within-family factors. *Child Development* 54, 408-415.
  - 52) McHale, S.M., & Gamble, W.C.(1987). Sibling re-

- relationships and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sabled brothers and sisters.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19, 131-158.
- 53) Mednick, B.R., Baker, R.L., & Hocevar, D.(1985). Family size and birth order correlates of intellectual, psychosocial, and physical growth. *Merrill-Palmer Quarterly* 31, 67-84.
- 54) Minuchin, P.(1985). Famili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 Provocations from the field of family therapy. *Child Development* 56, 289-302.
- 55) O'Leary, K.D., O'Leary, S., & Becker, W.C.(1967). Modification of a deviant sibling interaction pattern in the home. *Behav. Res. Ther.* 5, 113-120.
- 56) Rodgers, J.L., & Rowe, D.C.(1985). Does contiguity breed similarity? A within-family analysis of nonshared sources on IQ differences between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743-746.
- 57) Rothbart, M.K.(1971). Birth order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an achievement situation. *Journal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13-120.
- 58) Rowe, D.C., & Plomin, R.(1981). The importance of nonshared(E1) environmental influences in behavi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17-531.
- 59) Sameroff, A.J.(1983). Developmental systems : Contexts and evolution. In W. Ke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1). History, theory, and methods. NY : Wiley.
- 60) Schachter, F.F.(1982). Sibling Deidentification and split-parent identification : A family tetrad. In M.E. Lamb and B. Sutton-Smith(Eds.), *Sibling Relationships : Their nature and significance across the lifespan.* 123-151.
- 61) Sears, R.R., Maccoby, E., & Levin, H.(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Evanston, IL : Rowe & Peterson.
- 62) Stewart, R.B., Mobley, L.A., VanTuyl, S.S., & Salvador, M.A.(1987). The firstborn's adjustment to the birth of a sibling : A longitudinal assessment. *Child Development* 58, 341-355.
- 63) Stewart, R.B., Jr.(1983). Sibling interaction : The role of the older child as teacher for the younger. *Merril-Palmer Quarterly* 29, 47-68.
- 64) Stocker, C., Dunn, J., & Plomin R.(1989). Sibling relationships : Links with chil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family structure. *Child Development* 60, 715-727.
- 65) Stoneman, Z., Brody, G.H., & MacKinnon, C. (1984).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children's activities and roles while playing with their siblings and friends. *Child Development* 55, 617-627.
- 66) Sutton-Smith, B., & Rosenberg, B.G.(1970). *The Sibling.* NY : Holt, Rinehart & Winston.
- 67) Teti, D.M., & Ablard, K.E.(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infant-sibling relationships : a laboratory study. *Child Development* 17/60, 1519-1528.
- 68) Thompson, L., and Walker, A.(1982). The dyad as the unit of analysis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889-900.
- 69) Vuchinich, S., Emery, R.E., & Cassidy, J.(1988). Family members as third parties in dyadic family conflict : strategies, alliances, and outcomes. *Child Development* 59, 1293-1302.
- 70) Wagner, M.E., Schubert, H.J.P., & Schubert, D.S.P. (1979). Sibships constellation effects on psychosocial development, creativity, and health.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14, 57-148.
- 71) Walters, J., and Walters, L.(1980). Parent-child relationships : a review, 1970-198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07-822.
- 72) Ward, M.J., Vaughn, B.E., & Robb, M.D.(1988).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in siblings : role of the mother in cross-sibling consistency. *Child Development* 59, 643-651.
- 73) Weber, R.A., Levitt, M.J., & Clark, M.C.(1986). Individual variation in attachment security and strange situation behavior : The role of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7, 56-65.